

晉州姜氏通亭公後孫文良公諱希孟派家乘譜

南漢譜序

晉山之姜은吾宗也다自鼻祖元帥公以後三代有冠冕하고名公鉅卿이赫赫繼武하다
爲東國大姓者千有餘祀에支分派別하다兄弟之子爲堂從하고堂從之子若孫爲再
從三從而後屬浸疏하다終歸於路人이다然이다顧其初則一也다何忍昧昧不知其今
之雲仍이爲昔某公之支派而視之若路人哉아嗚呼다此譜之所以不可不作而其有關
於追遠而惇叙者非淺鮮也다宗人姜都事碩老甫가專精致力하고考出世系次第하다
編成一譜刊錄其子孫而宅相以下不與焉하다以同宗爲重故也다其追遠之誠다惇叙
之誼가實在於斯譜而爲吾宗之一大幸也다蘇老泉族譜에引曰觀吾譜者는孝悌之心
이油然而生矣다하니余亦曰觀斯譜者는無足以感發其善端而無復有路人視之歎也
다況當衰替不振之日하다苟能因斯譜而上念祖先之遺烈而務自奮起焉하고下勵
子孫之頽習而期以立揚焉이다芝蘭玉樹之寶가滿於謝氏之庭하고高車駟馬之慶이
溢於于公之門이다使之轉今而回昔則抑可見斯譜之有助而尤不爲幸中之幸歟아噫
斗老者勸之하고少者勉之則茲無不難致也明矣다諸君이以余齒最長으로強請爲之
弁하다辭不獲於是乎書하노다

丁未清和之閏下浣에 不肖後孫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
修撰官姜 瑜는 謹序하노라

漣川譜序

吾姜之譜가 宣廟以前之冊則世無傳焉이러니 肅廟乙丑에 南漢譜作하고 繼以清
州達城西倉御谷晉陽譜成하니 較其年數컨대 未甚相遠而今日之續修는 何也오 先
祖恭穆公壽藏이 己五百餘年之久矣라 齋宇가 傾頽하야 幾乎薦藻無所하고 墓道曾無
一片表頌之石하니 此乃爲後孫一大遺憾而居近日擊者尤非居遠耳聞者比也라 居近
諸宗이 會議決算하고 輪告於同祖之裔孫하야 請義捐金하야 建齋數十間하니 所收가
不及所費之半而猶未暇乎 豎碑矣러니 屬長湍秋享之日하야 遠近諸宗이 合席起議하
고 又設恭穆公派譜而以學秀漢宗兩氏로 薦都副有司하고 永老氏로 薦總務하야 印通
發行之際에 學秀氏奄忽하고 漢宗氏以老病辭하니 永老氏가 獨行其勞 焦思慮하야 更
與諸宗으로 薦定任員하니 以冀欽氏로 爲首任하고 學秀氏子大崑이 憾其先君未遂之
志하고 襲行掌財之務하야 不數暮而譜已成하고 建齋豎碑兩件事를 從而就緒하니 此
可見衆山之木이 能支大厦하고 百谷之水가 能致深淵者而抑豈非 祖先在天之靈이
所眷佑者耶아 粵在甲寅에 有事於 文敬公先祖墓所而御谷譜成하고 壬戌에 有事於

貫鄉舊基而晉陽譜成하고今日에有事於 恭穆公先祖墓所而派譜成하니誠所謂日雖不同而事則相符라讀吾譜者는孝悌之心이油然而有不可遏者矣라吾宗之幸이莫京於此而漢宗氏冀欽氏가亦遽爾捐世하니顧念經始之初면不無存沒之感이나如予無狀으로不敢贅言而亦嘗數年忝任故로畧叙顛末焉이라

炎帝紀元後八十五周甲又奇五十一年丁卯之靄月中泮에恭穆公十七代孫世永은謹序하노라



家乘譜 序

族譜는 自己家門의 血統과 家系를 一目瞭然하게 整理한 書冊이요 代代로 後孫에게 傳하며 秘藏하는 家寶인 것이다 譜冊을 보게 되면 自身이 태어난 由來를 알 수 있으며 由來를 알게 됨으로서 自然的으로 祖上의 歷史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因하여 崇祖와 睦族의 精神을 涵養하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우리 晉州姜氏의 譜冊이 처음으로 發刊된 것은 李朝肅宗十一年乙丑西紀一六八五年(南漢譜)부터 始作되어 近三百年間에 걸쳐 大同譜 또는 派譜가 無數히 發刊된바 있고 우리 門中도 西紀一九二七년에 發刊된 漣川譜에 一部子孫만이 入譜가 된 後로 半世紀가 經過하도록 數三次漏譜하다 보니 其間에 生死變動事項이 많으나 修譜의 機會가 없어 안타까움을 禁하지 못하고 苦心하던 中今年봄 諸子孫들의 要請에 依하여 不肖等이 主動이 되어 多幸히 이 家乘譜를 發刊케 된것을 無恨한 榮光으로 生覺하면서 이 卷頭辭를 가름 하는 바이다

壬戌(一九八二)九月 日

文良公(諱希孟)十六代孫

大瑩 謹識

晉州姜氏通亭公後孫諱希孟派家乘譜

高句麗兵馬都元帥姜以式將軍事蹟碑銘 및 序文

晉州는 三韓以來의 옛 고을이요 歷史와 傳統을 가진 嶺南의 名勝地인데 고을의 鎭山인 飛鳳山 南쪽기슭 萬人이 우러러보는 곳에 높이 지은 이 祠堂은 高句麗시대 隋兵을 무찔렀던 民族의 英雄姜以式將軍을 모신 鳳山祠다 代代로 전한 옛터에 祠堂을 처음 세운 것은 宣祖三年 서기 一五七〇年이요 壬辰倭亂 때 晉州城이 무너졌던 癸巳年 서기 一五七三年에 불타버렸다가 百餘年後 肅宗四十年 서기 一七一四年에 重建했으나 純祖 때 또 타버리고 뒤에 다시 改築 移建을 거듭한 나머지 이같이 壯麗한 새집을 이루어 놓았다 祠堂에 올라 옷깃을 여미고 參拜한다 음 물러나 옛 歷史를 멀리 상고하건대 우리 民族은 일찌기 白頭山 黑龍江 一萬里 平野위에 나라에 컸 터전을 열고 悠久한 歲月을 거쳐오면서 民族으로서의 集團生命을 保全하기 위해서는 大陸의 侵略勢力과 對抗하여 피로써 싸우기에 편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漢武帝가 水陸으로 군사를 이끌고와 侵攻했을 때 犧牲된이가 얼마였던지 疆土의 一部일망정 저들에게 빼앗겨 所謂 漢四郡의 設置를 보았던 것이나 四百年 동안 끈질긴 抗爭끝

에 高句麗사람의 손으로 收復하고야 말았다 大陸의 勢力이 바뀔적마다 그들
의 새로운 野望에 對抗할수밖에 없었기에 일찍 公孫氏 또 혹은 魏冠와도 싸
우면서 壯烈한 流血을 아끼지 아니했으며 마침내 隋唐兩朝 五帝七十年동안
延人員七十萬大軍의 侵略을 겪으면서 매양 그들을 물리친 民族의 義氣는 우
리들의 血管속에 傳해 내려온 것이다 그 옛날 우리 高句麗는 鴨綠江支流인
佟佳江유역을 舞臺로하고 일어난뒤 滿洲와 沿海와 西쪽으로 遼河유역에까지
勢力을 퍼갔던 一大強國이었고 다른한편 中原大陸에서는 隋文帝楊堅이 일어
나 南北朝를 統一시킨다음 그의 勢力을 멀리 蒙古와 西域에까지 뻗어갔던
莫強한 帝國이었으므로 서로의 衝突을 避할수없어 드디어 民族抗爭이 벌어
지고야 말았던 것이다

平原王마지막해 三十二年 서기五九〇년에 隋文帝가 南朝陳을 平定하자 일찍부터 陳과 親善關係를 맺어왔던 高句麗로서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어 平原王 다음 嬰陽王이 即位하여 두나라사이의 衝突을 미리 내다본 나머지 城郭을 修築하고 軍備를 擴充하며 軍糧을 備蓄하기에 모든힘을 다하던중 隋文帝로부터 高句麗를 脅迫하는 內容의 無禮한 國書를 보내왔던것이니 그 國書는

진작 三國史記 平原王마지막해 本記에 실려있음을 본다 嬰陽王은 侮辱的인
國書를 받고 群臣을 불러모아 回答할말을 議論했을때 姜以式將軍이 글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칼로써 대답하자고 主張하므로 嬰陽王도 기꺼히 贊同하
여 王의 九年隋文帝開皇一八年 서기五九八年에 將軍으로써 兵馬元帥로 삼아
精兵五萬을 이끌고 臨渝關으로 向하게하고 먼저 靺鞨兵一萬으로써 지금 萬
里長城서쪽 永平府地方인 遼西로 나가 遼西總管張冲의 군사와 接戰하여 臨
渝關 곧 山海關으로 隋兵을 誘引했다 隋文帝는 漢王楊諒과 王世積을 行軍元
帥로 周羅喉를 水軍總管으로하고 水陸軍 아울러 三十萬名을 이끌고 高句麗
를 征伐하고자 遼東을 向했으나 隋의 陸軍은 遼西의 柳城까지 나왔다가 장
마를 만나고 軍糧도 떨어졌으며 周羅喉의 水軍은 山東省東萊에서 出兵하여
바다를 건너 平壤을 向하다가 海上에서 暴風을 만나 혹은 破船 혹은 漂流로
遼水를 건널수도 없었거니와 실상은 姜將軍이 壁壘를 지켜 抗戰하고 水軍을
풀어거의 全軍을 擊沈시켜 隋兵은 三十萬名中十의 八九를 잃어버리고 九月
에 헛되이 돌아가니 이것이 隋와의 第一次戰爭이었던 臨渝關戰鬪요 姜將軍
의 큰 功蹟이었다 그러나 戰爭記錄은 史書에 적혀있으면서도 姜將軍의 姓名

은 적히지 않아 우리 모든國民들은一千數百年이 지나도록 그의史蹟을 아
 는이가 없더니國史學界의泰斗인丹齋申采浩先生이朝鮮上古史에 처음 밝
 혀냄으로써民族的英雄의 이름과業績을 알게된것은 참으로欣快한일이아
 닐수없다丹齋는 그의著書속에西郭雜錄과大東韻海等 두가지文獻을引用
 했는데雜錄에는臨渝關戰鬪때兵馬元帥로韻海에는薩水大戰때兵馬都元帥로
 각각 달리적혀있는중에서丹齋는西郭雜錄의記事를 쫓는다고말하면서臨渝
 關戰鬪로부터十三年뒤隋煬帝때에 일어난第二次薩水大戰때에는王弟建武
 가海軍을맡고乙支文德이陸軍을맡아있었기때문이라했었다勿論그같이稀
 貴한文獻을發掘해낸丹齋의見解를 따라야만하겠지마는 다시생각해보면
 第一次臨渝關戰鬪때兵馬元帥로指揮했던姜將軍이라그러나우리는여기서
 구대여將軍의地位를 따져야할必要를 느끼기보다그날에그같은民族的大
 英雄이계셨던것을確認하는것으로足한것이다그리고隋文帝뒤煬帝楊廣이
 大業八年嬰陽王二十三年서기六一二년에二百萬大軍을動員하여高句麗를
 쳤다가慘敗한第二次薩水大戰歷史는이미세상에널리알려져있고史記에
 자세히적힌바다再錄하지않거니와姜氏世譜에依하면본시將軍의墓所가

高句麗瀋陽縣元帥林에 있다 했고 지금도 滿洲奉吉線元帥林驛前에 兵馬元帥姜公之塚이라는 큰碑가 있어 數十年前까지도 여러 後孫들이 參拜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적혀있다

세상에 歷史란 오래 지나면 稀微해 지기도 쉽고 잃어버리기도 쉬운 것이다 將軍으로써 姜氏始祖를 삼아왔으면 서도 자세한 事蹟을 전하지 못하고 뒷날 新羅末葉에 太中大夫判內議令을 지낸 諱縉은 諡號가 正順公이요 晉陽候를 封한 어른이라 그로부터 晉州로써 姜氏의 本貫을 삼게 되었거니와 將軍으로 부터 一千三百年을 지나 오는 동안에 여러 支派로 나뉘었으니 各派 歷史를 通하여 文武將相으로 無數한 人物들이 輩出되었던 것이므로 여기에 세운 鳳山祠는 다만 姜氏一門의 榮光이 아니요 民族全體의 자랑이라 우리 모두 民族의 英雄 앞에 禮拜하고 義氣傳統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해같이 玲瓏한 民族의 英雄이여 歷史의 구름 뒤에 그 모습 가리웠다 나타나 환하시오니 더욱 눈부십니다 臨渝關싸움터에 遼河의 파도속에 隋兵三十萬을 쓸듯이 무찌르고 우리님 凱旋하실제 그 榮光 어찌 하던고 一千三百年이 바람같이 지나갔어도 壯하신 그 이름 겨레 가슴에 새기웁고 피끓는 義氣의 傳統 子孫萬代에 이어가리라

晉州姜氏通亭公後孫文良公諱希孟派家乘諱

臨渝關戰鬪後一千三百七十九周年되느

檀紀四三〇一年 西紀一九七七年三月一日

後學 文學博士

鷺山

李殷相

짓고

永嘉

金忠顯

쓰다

晉州姜氏通亭公後孫

文良公諱希孟派家乘譜

始祖姜以式(元帥公)遠代孫(諱啓庸)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啓庸 계용

(博士公)

高麗朝에文科에壯元하시어國子博士를歷任하시었다高麗元宗十五年甲戌(一一七四)에通信使書狀官으로日本國에드러가시여 많은功을세우시고還國하신後晉山府院君을封受하시었다그後로다시며슬길에오르지 않이하시었다事蹟이遺史에 나타나있다

子引文 인문

(給事公)

高麗朝에文科에壯元하시여殿中內給事를歷任하시었으며 博士公께서日本國에드러가실때에公께서從行하시었으며 忠烈王七年辛巳(一一八二)에다시日本에들어가실때에公이日本國地理에能熟한關係로다시薦擧되어日本에또다시들어가시었다가還國하신後로며슬길에오르지않이하시고子孫

子師瞻 사침

(御史公)

高麗忠烈王朝에監察御史를歷任하시었으며 孫子君實의貴로因하여判內議令叅理副使의贈職을받으시었으며이事實이乙丑丙戌兩譜에記錄되어있다墓는草溪甲山이라記錄되어있으나失傳되시여 英祖五十七年丙申(一七五五)에 後孫이現草溪甲山에壇을모시고行祀하고있으

子昌富 창부

(大將軍公)

陰職으로 벼슬길에 오르시어 精勇衛大將軍을歷任하시었으며晉陽君을封受하시었다墓는先考墓와함께失傳하시고御史公壇下右側으로別途로設壇하여行祀를모시고있으며傍后孫應教世白이壇碑文을撰하였다

子君寶

一七見

子璜寶 황보

子畋寶 천보

晉州姜氏通亭公後孫文良公諱希孟派家乘譜